

2022. 10.14

충청권 AI인공지능 주간 마지막날

썰전

AI기술이 적용된 이색적사례? 펫산업같이

화장품 추천 시스템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해줌. 스포츠기사 같은 경우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 이미 대체하고 있음

n행시 해주는 인공지능도 있다

로그라인(드라마 줄거리 4줄)짜주는 AI도 있다 (소재없을 때)

AI기술 중 어느 분야가 가장 핫해질까(10년뒤)?

AI로봇, 지금은 단순한 서빙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가면 휴머노이드 형태로 다양한 일을 할 듯

물류공장

옵니버스(젠슨왕 keynote: 시행착오없이 가상환경에서 공장을 만듦)

데이터만 넣으면 이와 관련한 수식(수학방정식)을 알아서 뽑아 줌(insight필요 없음)

나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할지도 뽑아주기도 한다

인간의 감정을 잘 반영하는 AI가 가능할까? 아직까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음

인공지능이 인간을 언제 추월할까? : 생각보다는 느릴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답변 평균-2100년

일본에서 데이터 연습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상담서비스 같이 감정을 읽어내는 것을 AI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것

인공지능과 교육

현재 고등과목에 있다. 현재 초등학교 7-가까지 내려왔다

듣말쓰처럼 디지털 소양도 그만큼 중요하다. 영어를 말로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림도 컴퓨터로 그리는 걸로 바뀌는 중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많다. 수업보다 수준에 맞는 큐레이팅으로 나아갈 것.(맞춤형)

또한 큐레이팅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그림 : 예술을 잡아먹은 AI. 다음 확장분야는 어디일까?

람브란트 따라하기 ->: 창조 까지 가능해진 AI. 과연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if)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고르는 것이라면 인공지능이 더 유리할 것

마음의 교감이 앞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술의 정의도 변하는 듯. 과거의 예술은 똑같이 그리는 거였으니 사진의 발명으로 의미없어진 것처럼

누구나 창작가능해질 것 =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다

예) 만화방->웹툰이 커진 것처럼 창작활동의 자유로 문화시장이 커질 것

코드, 인공지능은 붓(도구)일 뿐. 어떤 그림이 훌륭한지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미술작품. 감정에 대한 정의가 어려워 그 분야가 또 연구되면 AI가 정복하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감정이 파악될까? 바깥의 분야 연구에서 관심이 커질 것

뇌파로 감정을 분석하는 것 시도 중, 스토리에 맞춤 그림책의 그림을 그려주는 AI도 있다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항상 크로스오버를 가져왔다 ;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해야할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까?

앞으로 가면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올 것. 코딩을 무작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뭘 할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듯